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 여름공동체생활 넷째 주일입니다. 더위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8월 1일)은 여름공동체생활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으며, 성찬식 준비물은 토요일 저녁에 각 가정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함께 생활하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던 해온 전도사님 가정이 수요일에 귀국합니다. 앞으로의 사역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포천시와 협력하여 섬기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양평문구 합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오르단 중국

제 38 - 29 호
2021년 7월 2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코로나 20(19), 2020 도쿄 올림픽

작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여파로, 올림픽이 한 해 늦춰져서 일본 도쿄에서 드디어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전부터 말이 많던 올림픽이 엊그제 23일 개막한 이후, 여러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기쁜 소식은 첫날에만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의 활약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양궁 훈성에서 안산(20세), 김제덕(17세) 어린 궁사들의 놀라운 활약은 전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폭염에 지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금메달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올림픽이 전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된 것은,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교육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 덕분입니다. 그는 일찌감치 스포츠가 인성 및 도덕성 개발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이를 학교 교육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대 올림픽의 유적이 발견된 소식을 듣고, 이를 부활시켜 여러 나라 청년들을 올림픽으로 묶어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1896년 그리스에서 근대 올림픽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올림픽 메달 중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이름을 딴 메달이 수여된 적이 있습니다. 금, 은, 동메달이 아닌 근대 올림픽 창시자의 이름을 딴 특별 메달이 수여된 것입니다.

이 메달의 주인공은 '2016 리우 브라질 하계올림픽'의 마지막 성화 주자인 '반데를레이 지 리마'(마라톤) 선수입니다. 성화 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축구 황제 펠레일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가 선택된 이유가 바로 특별 메달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마 선수는 2004년 아테네 하계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 36Km지점까지 1위로 달리다가 갑자기 난입한 관중에 의해서 레이스를 방해받고 넘어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최종 3위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승선을 앞두고 경기장에 들어오면서 끝까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환호와 기쁨을 표현하는 제스처를 마음껏 펼쳐보이며,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겪었던 불행스러운 일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환호와 기쁨을 표현하는 제스처를 마음껏 펼쳐보

이며,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겪었던 불행스러운 일에 대해, 원망하고 실망할 법도 한데 마라톤 결승점 앞에서 보여준 그의 놀라운 퍼포먼스는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이 무엇인지, 스포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개막식에서 206개국 선수 입장을 보면서 특이한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난민으로 구성된 난민 선수단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였습니다. 선수들은 러시아인들인데, 러시아는 자국의 이름으로 올림픽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조직적인 금지약물 복용과 도핑 테스트를 회피한 일이 밝혀지면서, 세계반도핑기구에서는 2019년 12월 최종적으로 4년간 주요한 국제대회에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출전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핑에 연루된 백 수십 명의 선수들이 국제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페어플레이 정신 즉 공정과 정직입니다. 그리고 단체경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협동과 희생과 같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칙과 편법을 써서 기록을 향상시키고, 메달까지 획득한다면, 그것은 모든 스포츠인의 사기와 동기를 깨아먹을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일 것입니다.

모두가 즐겨야 할 스포츠를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때, 그것은 경쟁과 돈벌이와 유명세를 위한 욕망의 덩어리로 변질되고 부패되고 맙니다. 그러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스포츠는 함께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도덕과 가치 기준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폭염과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때, 땀과 노력의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펼쳐보이는 멋진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수요기도회〉

성경 : 베드로전서 5장

제목 :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합시다.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9 408 449 455 220 212

1. 내용관찰(What)

1-7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위해 권면함

8-11 악마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것을 권면함

12-14 평화의 문안인사

2. 내용의 의미(Why)

1)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고 따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 우리의 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아합니다.

3) 초대교회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1) 지도자는 겸손으로 사랑하며 일꾼은 겸손으로 통찰력을 길러나갑시다.

2)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굳게 서 악마를 알고 상대합시다.

3) 주변의 교회들과 연합하며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러시아에서 온 기쁜 소식

지난 7월 22일에 러시아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신 강태원 선교사님께서 사랑방공동체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러시아에 선교장학금으로 지원했던 장학생 알리나 청년이 모든 대학과정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선교사님의 편지글을 함께 나눕니다.

“존경하옵는 정태일목사님, 사랑방교회 선교부 앞에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비다 판데믹 중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평강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잘 통과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2016년부터 지원을 한 러시아 장학생, 현지 목회자 자녀, 인 알리나가 올해 7월 치과기공대학을 마쳤습니다.

툴라 은혜교회 목회자 유리 목사의 장녀로서, 교회 봉사에 힘쓰는 한편, 툴라에서 약 200km 떨어진 깔루즈스카야의 치과 기공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며 모든 과정을 마쳤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방교회의 정기 장학금과 항시 중보기도에 힘입어 졸업함을 축하하며, 교회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판데믹 기간 중에도 기쁜 열매를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직장을 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교회의 일군이요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자로 역할을 감당하리라 기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교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웅답의 찬송
*봉헌기도
*영광찬송
*위탁의 말씀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김충필 이현숙 / 봉헌위원 : 김충필 / 꽃꽃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숙 설지이 옥대철

예 배

인도자 : 정태일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이사야서 66:2 인도자

88

빌립보서 2 : 1 - 11 설교자

620 사방방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정태일목사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공동기도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란한 시대에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을, 결속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세 부분입니다.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1-2>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3-4>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5-11> 그리고 내용의 중심은, 기쁨이 넘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줄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은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한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본문은 로마의 박해와 그로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과 빌립보교회의 어려운 상황이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중에도 예수 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마음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나아가 미래의 승리를 약속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마11:29>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람에 앞서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겸손하십시오. 내적인 겸손은 밖의 언행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꾸러기학교

비대면의 아쉬움은 온대간대 없이 아침모임에 즐거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꾸러기들이 들어옵니다. 더운 날씨에 반팔보다 짧은 런닝셔츠를 입은 친구들을 보면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엄마들이 옆에서 줌을 켜주고 아이들만 화면에 나오면 반가운 인사를 엄청 날립니다. 너무 좋은 나머지 어떤 친구는 물구나무를 서고,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장난을 칩니다. 비대면 모임에 많이 익숙해진 꾸러기들이 소모임으로 모일 때 친구들과 따로 얘기하고 방에서 안 나가는데 주제는 '똥'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즐거워하며 말하는지 옆에 선생님들과 엄마들이 빵 터졌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꾸러기의 전통 핫 키워드인 똥을 비대면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진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1학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수요일에 놀거리는 수제비 만들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반죽에 색을 입혀서 하는 특별한 수제비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당근을 보내서 주황색 수제비를 만들 수 있게 했는데 꾸러기 엄마들의 정성으로 2개에서 5개까지 색을 내서 반죽을 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채로운 수제비를 맛있게 먹은 꾸러기들이 만들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잘 먹었다는 후문들이 있었습니다.

7월 22일부터 꾸러기는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8월 23일에 개학을 예정하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코로나19가 팬찮아서 무사히 개학 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람 >

배움과 가르침

방학이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면담도 끝났고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쉬움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즐거움과 보람도 가득한 한 학기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선생님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안건을 이야기한 뒤 면담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을 서로 나눴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학부모 면담이 변경되면서 오지 못하신 가정에 방학과제 안내문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다음 학기와 2022년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안식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조 익 >

멋쟁이학교

무더위 속에서 각자만의 방학생활들을 해나가는 요즈음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음 학기를 위한 회의들을 몇 차례 진행했고, 이제 거리두기 4단계로 미뤄두었던 부모님과의 만남도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웃거나 울었던 그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기대됩니다. 이를 통하여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사랑방공동체와 멋쟁이학교에서 함께 살아왔던 해은 전도사님께서 이번에 사임하십니다. 그 모든 함께 했던 삶의 시간들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추억과 경험, 지식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앞을 향한 걸음을 옮겨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주할 앞날과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감자

올해 어린이학교에서 감자를 캤 날은 6월 23일이었다. 그 땐 장마가 살짝 시작돼서 비가 오는 날이 잦아질 즈음이었는데, 더 큰 비가 오기 전에 서둘러 날을 잡아서 캤 것이다. 목장갑을 끼고, 나 집사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앞 팀의 노하우를 전수 받아 나아갔다.

먼저 밭이랑을 덮은 검정비닐을 쭉 벗기고 나서 두어 명의 삽질 요원이 감자가 묻힌 땅을 살짝 뒤집어주면 다른 요원들이 감자 줄기를 잡고 살살 당겨서 감자를 뽑고, 그리고 호미로 남아있는 감자를 또 살살 꺼낸다. 흙 밖으로 나와 있는 감자를 통으로 재빨리 나르는 요원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자를 모아놓은 큰 통들을 교무실 앞 임시 집하장으로 나르는 데에 큰 힘이 들어서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결국은 감자 캐기 작업을 잘 마무리하였다.

이제 감자를 분류하고 담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일단 감자를 대, 중, 소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골고루 해서 정한 무게만큼 검정비닐에 담는다. 그러면 집으로 갈 때 친구들 손에 들려 보내고, 어린이학교 수업 오시는 강사 선생님들께도 선물해 드린다. “선생님, 진짜 무농약 유기농 감자예요~!”라고 하면서 말이다.

감자는 우리 집에도 왔다. 내 것도, 꾸러기학교에서 작업한 언니 것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뒤 베란다 한편, 큼직한 종이 박스 속 신문지 밑에 있다.

방학을 하고, 감자를 캤 지 한 달이 지난 요즘 신문지 아래 있는 감자가 맹활약을 하고 있다. 외출은 주저되지만 끼니 시간은 때 맞춰서 다가오는 요즘 같은 시간에 고마운 양식이다. 채 썰어서 감자전으로, 깍둑 썰어서 된장찌개와 카레 속으로, 그리고 곧 찌고 으깨서 감자 샐러드도 될 예정이다.

맛좋은 감자가 식탁으로 오기까지 고마운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일단 땅이 고맙고, 수고한 집사님들이 고맙고, 노작한 멋쟁이들이 고맙다. 함께 일한 어린이들, 교무실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분류한 선생님들, 함께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 가족들이 고맙다. 이 풍요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누군가는 한밤중에 냉장고 속 고등어를 보고 감사를 느끼는데, 나는 베란다 한 편 박스 속에 있는 감자를 보고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땅속에서 딸려 나오는 감자 마냥 줄줄이 감사할 이들이 많음에 또 감사하다.

그루터기사랑방 전선희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베드로후서 3:13-18

인도 : 해은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중국 허난성의 천년만의 폭우피해>
중국 허란성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1년차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무려 1시간에 201.9mm의 양이 물폭탄이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75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92만 명은 집을 떠나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2. 교회 간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원>
 - 1) 중보기도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예수원 보내주시길,
 - 2) 5월부터 시작될 77기 자원생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 3) 예수원에서 시작된 중등홈스쿨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삶과 신앙 그리고 지식을 잘 전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사랑방공동체가 5주간 설교 말씀을 통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 2) 공동체 학교는 방학중입니다. 모든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들은 쉼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생활공동체 소식 >

연일 폭염으로 찌는 듯한 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도심보다는 베틸만 하다고 생각하다가도, 한낮의 열기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초에는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비닐하우스를 치고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작업을 했는데 농부들이 이른 새벽에 일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함께 생활했던 해은 전도사 가정이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 몸 한 공동체 식구로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는데, 떠나보내려고 하니 다들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자리는 멀어질지라도 신앙안에서 연결의 끈은 계속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시다.

< 정재훈 목사 >